<제1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폴 리쾨르에서 악의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리쾨르는 '악(惡)'의 개념을 **악의 처음과 끝에 대한 이야기**, 즉 신화로부터 이끌어낸다. 신화는 "태초의 사건에 대한 전승된 이야기"로서 "인간의 자기 이해를 가능케 하는 모든 사고와 행위의 틀"을 결정짓는다.[1] '악'에 대한 신화는 **현실적 악에 대한 고백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악의 고백은 악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말들이다. 고백의 낱말들은 악과 대면한 생생한 두려움과 탄식을 담고 있다. 악의 숨결이 살아 느껴지는 '첫 낱말들(일차 상징들)'은 삶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드러내 준다. 신화는 '첫째 상징'의 경험을 뒷사람들에게 되풀이해 주는 이야기이자 그때와 그곳에서 벌어진 일의 의미를 말글로써 합리적으로 되새겨 놓은 이야기이다. 합리성(合理性)은 '이치에 딱 들어맞음'과 같다. 악의 신화는 악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바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치에 맞춰 설명해 주는 '매듭풀이의 한 틀'인 셈이다.(ㅅ)

서양 신화에서 **악**은 사람이 맺어 왔던 '성(聖)스러운 것'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위협적 현상이다. 위협(威脅)은 두렵게 하거나 으르는 일을 말한다. 두려움은 누군가 자신이 한 짓 또는 할 짓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뒤탈에 대한 기분을 말하고, 으름은 두려운 무엇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사람은 악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이 맺어 왔던 세계로부터 되돌아갈 수 없이 쫓겨날 수도 있고, 그 세계 자체가 '저질러진 악' 때문에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 만일 쫓겨나거나 허물어져 버린 세계가 '**성스러운 세계**', 풀어 말해, 사람이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세계였다면, 악의 결과로서의 쫓겨남과 허물어짐은 삶 자체가 결딴날 위험에 처한 것임을 뜻한다.(ㅅ)

세상에는 분명 악이 있다. **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성(聖)스러운 세계'는 사람이 악을 저지를 때마다 사람의 삶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간다. 성스러운 세계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세계, 달리 말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온-누리'이다. 성스러움은 또한 가장 높고 뛰어난 것의 됨됨이를 뜻한다. 성스러운 신(神)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이 세계 전체를 넘어서 있다. 성스러움은 세속(世俗)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면서 동시에 세속을 넘어선 거룩함을 뜻한다. 속세를 떠난 이가 세상을 돌보는 뜻은 크고 깊다. 성스러움과 거룩함으로부터의 멀어짐은 세상의 파국이 가까워짐을 뜻한다.(ㅅ)

그런데 세상에는 또한 **선(善)**도 있다. 선은 성스러운 세계를 삶에 불러들인다. 거룩한 성스러움의 되돌아옴은 사람의 삶 자체가 그 본디다움(본래성)을 되찾게 됨을 뜻한다. 사람이 악

1 폴 리쾨르 지음,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1960년)』, 문학과지성사, 1994, 19 쪽 살핌. 앞으로 이 책의 따옴 쪽수는 괄호 안에 적는다.

행을 끊고 선행을 이어갈 때 사람은 '성스러운 것'과의 매듭을 다시 올곧게 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예수가 사람무리(인류)의 원죄(原罪)를 깨끗이 씻어내 줌으로써 사람과 하느님의 '성스러운 매듭'을 새롭게 짜나가기 시작한 것에 빗댈 수 있다. 악이 신과의 단절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선은 그 단절을 회복하여 신과 하나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악이 비롯되어 그 뒤에 펼쳐진 일에 관한 이야기로서의 신화는 악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함께 말해 준다.(ㅊ)

리쾨르에 따를 때, 원죄의 신화 밑에는 '죄의 고백'이라는 **체험 세계**가 놓여 있다.(20쪽) 악에 대한 이야기는 죄에 대한 체험과 고백에 그 바탕을 두고 펼쳐진다. '악의 상징'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바탕이 앞서 풀어 밝혀져야 한다. 이때 풀어 밝힘은 곧 '체험의 되풀이'와 같다. 다만 어떤 체험이 되풀이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적어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언어적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말글이 없다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체험도 되풀이될 수 없다.(ㅊ)

1. 죄에 대한 '고백 현상'에 대해

리쾨르는 '악의 개념'을 현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죄에 대한 고백의 현상'을 파고든다. 서양의 전통은 '죄의 고백'을 통해 '악'의 실재를 발견했다. 죄의 고백은 '악의 상징'으로서 '악'을 문화적-역사적-언어적으로 드러낸다. 리쾨르에 따를 때, 죄의 고백은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체험의 표현으로서 아래의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 갈피 모름

고백하미[고백함+이=>고백함미]는 '느낌'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 고백(告白)은 이야기의 한 갈래 꼴로서 자기 마음속에 숨겨 놓았던 생각 — 저지른 죄나 허물 — 을 마치 신 앞에 아뢰듯 드러내어 밝히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고백을 통해 '마음속 느낌'으로만 있던 어떤 체험을 '객관적으로 형태화' 한다. 고백은 느낌을 객관화하는 언어이다. 고백의 말은 누군가 자신의 의식 안에서만 비추어 볼 수 있는 잘못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밝은 세계'로 이끌어낸다. 사람은 고백을 통해 "어긋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체험 한가운데에서조차 말하는 존재"(21)가 된다. 고백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체험의 영역 속에 어지럽게 덩어리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느낌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갈피를 가지런히 잡아가려 한다는 것을 뜻한다.

㉯ 복잡성

고백은 복잡한 체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죄의 고백에서 드러나는 체험은 다음 세 단계로 얽혀 있다. 가장 먼저, 허물의 체험은 한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경험한 뒤 그것이 내면화되고 개인화된 형태를 말한다. 다음으로, 죄(罪)의 체험은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으로서 "신 앞에 선 사람의 현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흠(欠)의 체험은 죄의 체험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흠은 "바깥에서 가한 흠집"과 같다. 고백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죄 또는 결함(缺陷)이 복잡하게 뒤엉킨 고통의 체험을 밝혀 드러내는 말이다.

㉰ 의미 물음

죄의 고백은 '성스러운 것'과의 분리에 대한 경험으로서 일종의 자기 소외에 대한 고백이기

도 하다. 성스러운 것이 자기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과의 분리는 곧 자신이 곧 자신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 달리 말해, 자신의 삶이 무의미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죄는 나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하ᄂᆞ님은 숨었고 세상 돌아가는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22) 우리는 이러한 무의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신에게 묻게 된다. 신화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악(분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준다. 사람이 죄를 지어 신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체험에 대한 고백은 죄에 대한 '당혹스러운 물음'에 대한 '합리적 대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2. 흠(欠): 악의 첫 번째 '상징 개념'

가) 옮음의 원리

흠(欠)은 缺(결)의 약자(略字)로서 항아리가 깨진 상태를 나타낸다. 흠은 어떤 것이 제 노릇을 다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없어진 자리를 말한다. 처녀가 순결(純潔)을 잃었다면, 그것은 처녀에게는 결정적인 흠이 되고, 통치자가 통치술을 익히지 못했다면, 그것은 통치자의 커다란 흠이 된다. 이것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에 빗댈 수 있다. 만일 흠이 '악'의 근원적 상징이라면, 악은 어떤 것의 본래적 상태를 깨뜨리는 것인 셈이다. 이에 따를 때 흠 있는 사람은 그 자신 때문에 어떤 일에 차질(蹉跌)을 빚게 된다. 만일 그의 흠이 깨끗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계획했던 일은 완수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흠은 흔히 누군가 부정(不淨)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타게 되는 것이다. 흠을 가졌거나 흠이 잡힌 사람은 그로 말미암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늘 두려움에 떨게 마련이다.(ㅊ)
리쾨르에 따를 때, "개구리가 불 속에 뛰어들거나 천막 근처에서 하이에나가 똥을 누는 짓"(39)과 같은 것도 흠으로 이해되었는데, 이때의 흠은 금기(禁忌)의 객관적 훼손을 뜻했다. 흠의 주요한 본보기는 '성과 관련된 금기의 훼손', 보기를 들자면, 근친상간(近親相姦), 남색(男色), 낙태,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의 성교와 '흘린 피의 저주'로서의 살인이 꼽힐 수 있다. 이때 부정한 것은 접촉과 전염을 통해 옮아가는 어떤 물질이 된다. 만일 아버지의 정액이 부정하고, 어머니의 자궁과 출산이 부정하다면, 태어난 아이 또한 부정한 것이다. 성교는 '보편적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다만 성교의 흠은 결혼 의식과 같은 제의를 통해 깨끗이 씻길 수 있다. 처녀성은 순결로서 흠 없음을 뜻하고, 이는 곧 접촉을 통해 오염되지 않음을 뜻한다.(40-41)
성경 창세기에 따를 때, **사람의 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졌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선악을 가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ㄴ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능력을 간직한 사과에 손을 댔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기까지 함으로써 하ㄴ님의 능력의 일부를 나누어 갖게 되었다. '처음 사람들'은 선악을 깨달을 수 있게 되자마자 자신들이 신성한 능력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럽게 여겼을 뿐 아니라 하ㄴ님을 두려워 피하기까지 했다. 하ㄴ님은 그들에게 도둑질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살아 있는 동안 저마다 노동과 출산의 죗값을 치러야 했을 뿐 아니라 끝내는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했다.(ㅊ)
하지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신적인 능력은, 그것이 결코 소멸될 수 있는 세속적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 사람들의 피를 타고 끊임없이 흐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몸속에 **악의 능력**이 심겨진 이상 그들은 하ㄴ님의 세계에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될 것이 뻔했다. 하ㄴ님은 처음 사람들이 하ㄴ님의 또 다른 능력들을 도둑질할 것을 저어해 그들을 신의 세계 밖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사람들의 몸속에는 선악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선악 나무 열매'가 분리할 수 없게 녹아들어 있다. 사람들은 선악의 갈등과 선택 속에서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된 셈이다.(ㅊ)
성경 레위기 15장에는 '정액이나 피로 말미암은 죄의 유전'에 관한 세 가지 규례가 나온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이 죽음을 불러들이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먼저 남자가 성병에 걸린 것은 부정(不淨)하다.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다면, 그는 불결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가 눕거나 앉았거나 닿았던 모든 자리뿐 아니라 그가 뱉은 침 그리고 그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모든 물건까지도 '부정'을 옮길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람들은 이러한 부정한 것이 그 자신에게 옮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책은 주로 옷이나 몸을 흐르는 물로써 씻는 것이다.(ᄉᆞ)

다음으로, 남자가 흘리는 정액과 여자가 몸에서 흘리는 피는 부정한 것의 대표로서 성병의 경우와 마찬가지 예방책으로써 피해야 한다. 그런데 성병의 고름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정액과 피는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정액과 피가 부정하다는 생각은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둘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성경은 이러한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물로 씻는 것으로 부정을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월경 기간이 아닌 경우에 흘리는 여자의 피는 남자의 성병과 마찬가지로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결코 정결케 되지 않는다. 뭔가 그 유래가 달라 보이는 부정한 것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로써만 깨끗하게 없앨 수 있다.(ᄉᆞ)

레위기는 부정을 탄 것을 멀리하거나, 그것에 옮은 사람이 그것을 없애 본디의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규례를 밝혀 놓았다. 여기서 더렵혀진 것 또는 흠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간다. **옮음**은 일종의 생물학적 변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다른 종족의 사람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종의 순수함을 지켜 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씻어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신의 징벌을 피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깨끗한 사람만이 신에게 나아갈 수 있고, 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사람이 내적으로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늘 부정을 탈 위험에 처해 있는 한, 그는 스스로를 씻어야 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에게 깨끗함을 구해야 한다.(ᄉᆞ)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은 예수가 '피를 흘리는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댄 것을 나무라기커녕 그 여인의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해 준 '**자유의 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는 '부정 탄 사람'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병을 나을 목적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케 만드는 죄를 짓는 것과도 같았다.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자신의 몸이 순식간에 낫는 기적을 체험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마가복음, 5장, 30절)라고 물으며 자신을 찾으려 무리를 둘러보자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아뢰었다.(마가복음, 5장, 33절) 여인은 예수가 자신에게 벌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ᄉᆞ)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가르친 문둥병에 걸린 부정한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물리치는 대신 그들을 몸소 만져 고쳐 준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누가복음, 5장, 13절) 예수의 기적은 부정의 원리를 깨트리는 사건이다. 이는 곧 하ᄂᆞ님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손은 '죄 없는 손'으로서 '부정한 어떤 것'이라도 '죄 없이 깨끗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깃들여 있다. 이제 **옮음의 방향**이 바뀐 셈이다. 사람들은 흠 있거나 부정 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예수의 피를 마시거나 그의 손

이나 옷자락을 만지거나 심지어 그가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기만 해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亽)
흠은 '부정 탄 것'으로서 어떤 재앙이나 불행 또는 벌을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악하다. 흠은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묻은 '더러운 것'으로서 **옮음의 원리**에 의해 이해된다. 옮음은 마치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건처럼 받아들여진다. 흠은 흠 있는 사람이 그것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그 사람 자신에게 계속 달라붙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옮아 나감의 사슬은 후대로까지 이어져 내려간다. 더러운 것의 옮음의 고리가 비록 '깨끗한 손'이나 '깨끗한 법(法)' 또는 '깨끗한 피'에 의해서만 끊길 수 있을지라도 그 '옮음 고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에 의해 꿰어져 나간다. 옮음의 빛깔이 악에서 선으로 바뀐 것이다.
흠이나 부정한 것 그리고 더럽혀진 것은 그것이 흠 있는 사람을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악하다. 흠은 그것이 옮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깨끗이 지워버리지 않는 한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 아무리 작은 흠일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을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한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개인의 흠이 공동체적으로 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흠이나 악은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흠은 숨기거나 감추어서도 안 된다. 사람이 종교적 금기를 어기거나 부정을 탐으로써 갖게 된 흠은, 그것이 깨끗케 되지 않는 한, '성스러운 것'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악'이 된다.

나) 두려움의 윤리

흠은 부정한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닿음으로써 생기는 '물리적 상처'와 같다. 흠은 일종의 오염 물질로서 '흠 있는 사람' 자신을 못 쓰게 만들 뿐 아니라, 전염 물질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을 수 있다. 문둥병 환자나 '피를 흘리는 여인'은 자신들의 흠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격리되거나 소외된다. 그들이 깨끗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없다. 분리와 고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기분은 사람들에게 깨끗함에 대한 존중과 열망의 마음을 피어오르게 한다. 흠이 생긴 사람은 사람다운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나 신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리쾨르는 부정 타는 행위에 뒤따르는 '보복성 응보'가 두려움을 낳았다고 보았다. "**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생각은 모든 제도, 모든 노력, 모든 법령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41-42쪽) 부정한 것의 씻김을 위해서는 어쨌든 속죄의 제의를 거쳐야 한다. 신에 의한 속죄는 깨끗함의 회복을 의미하고, 이는 삶의 질서가 다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신에게 산비둘기나 숫양 등의 희생양을 바쳐야 함과 동시에 스스로는 어떤 고난(苦難)을 달게 받아야 한다. 깨끗해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은 '흠에 대한 마땅한 되갚음'이다.
흠은 그것이 '악'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워져야 한다. '가능적 악'으로서의 흠은 '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끗케 하기 위한 응보(應報)를 달게 받음으로써 없어질 수 있다. '흠에 대한 응보'는 일종의 고난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 달리 말해, '마땅히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당위/當爲)'이 된다. 만일 누군가 이 고난을 피하려 한다면, 그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다. 깨끗해지기 위해 괴로운

일을 떠맡는 일은 일종의 빚을 지는 것과 같다. 떠맡으미가 깨끗해지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그는 그 이상의 벌을 받지 않은 채 용서를 받게 된다.
흠이 있는 곳에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죗값도 함께 있다. 이 죗값은 흠을 없애기 위해 갚아야 할 빚이다. 만일 빚을 갚는 것이 올바르다면, 자신의 흠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도 올바르다. 이와 달리 만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흠을 깨끗케 하기 위해 그의 죗값을 대신 짊어진다면, 그의 행위는 올바른 게 아니라 희생적인 것이다. 희생이 비록 갚음의 한 방식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흠 있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를 깨끗케 하는 일이 빠졌기 때문에 그 희생은 불완전한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온전히 깨끗함은 언제나 올바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즉 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깨끗해짐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한다.
리쾨르에 따를 때, 서양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합리화의 도식"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그것의 원인으로서의 흠 또는 죄 사이에 맺어진 인과 관계이다.(43쪽) 고기잡이나 수렵을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된 것은 그 부인이 간음했기 때문이고, 난산이나 사산을 당하거나, 자연 재해(폭풍, 일식, 지진)를 당하거나, 항해나 수렵 또는 어로 따위에서 실패하게 되는 까닭 또한 흠을 깨끗하게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죽는 것은 그가 흠이 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부정을 탔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ᄂᆞ님은 결백하다."(43쪽)
이러한 '흠-고난'의 인과 관계는 아직 윤리적인 게 아니다. 고난이 흠의 물리적 결과인 한 흠은 윤리적일 수 없다. 흠이 윤리성을 가지려면 흠과 고난 사이의 인과적 필연성이 무너져야 한다. 만일 흠이 일종의 갚아야 할 빚처럼 정화 의식을 통해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은 물리적 사건이나 경제적 거래와 비슷해지고 만다. 이와 달리 흠이 그 자체로 어떤 두려움을 낳는 것으로서 사람이 마땅히 피해야 하는 것이 될 때 사람은 그 흠을 피하고 줄이는 노력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이 될 수 있다.[2]
욥은 '이유 없는 고난', 달리 말해, '흠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비난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자신이 만든 흠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님을 잘 깨닫고 있다. '흠-고난'의 인과는 깨진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성스러운 신'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한다. 그로써 그는 신의 구원을 받는다. 육체적 고난은 욥의 흠에 대한 응보로서 그 흠을 깨끗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을 위한 것이다. 욥은 자신의 흠에 대한 친구들의 지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는 길만이 '올바른 길'임을 고수한다.

---

2 리쾨르는 흠의 이러한 이중성을 카타로스와 카타르시스라는 낱말의 뜻을 소개함으로써 잘 보여 주고 있다. 카타로스(κ α θ α ρός)는 '부정한 것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때 부정한 것은 뒤섞인 것, 더러운 것, 흐릿한 것, 혼동되는 것 등과 같은 것이다. 깨끗함은 물리적 차원뿐 아니라 어떤 개념적이고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차원과도 관계된다. 카타르시스(κ ά θ α ρ σ ι ς)는 청소를 뜻할 수도 있고, 체액을 비우는 것(설사)을 의미할 수도 있다. 청소는 제의적 정화나 윤리적 순결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이 두 낱말은 '육체에 갇혀 있는 영혼'의 정화 과정을 일컫기도 한다. 본디 깨끗했던 영혼이 육체와 뒤섞이는 바람에 더럽혀졌고, 사람은 철학(지혜〉슬기 맑힘)을 배움으로써 영혼을 다시 맑게 할 수 있다.(49쪽)

의인의 고난은 흠의 결과가 아니다. 흠이 없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사건은 흠과 고난을 분리시킨다. 흠이 부정하게 여겨진 까닭은 그로 말미암은 어떤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라 그 흠 속에 주어진 어떤 경고, 말하자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금기의 위력 때문이다. 이러한 금기 속에는 어떤 보복이나 처벌이 예언되어 있다.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금기를 지키거나 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신적인 명령이나 금기는 일종의 계율이나 율법으로서 '윤리적 죄'의 근간을 이룬다.
흠은 그것이 어떤 되갚아야 할 죗값으로서의 고난을 낳는다는 점에서 '악'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난 자체 또한 '악'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반드시 흠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닌 한, 고난이 곧바로 '악'인 것은 아니고, 또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기도 한다면, '죄'나 '악'은 '흠'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한다. 만일 여인이 몸에서 흘리는 피가 비록 여인 자신의 흠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여인의 죄나 악이 될 수는 없다면, '죄'나 '악'은 흠과 같은 어떤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인과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찾아져야 한다.
죄나 악의 다른 차원은 두려움의 기분을 통해 열린다. 사람은 신의 금기를 깨뜨림으로써 받게 될 두려운 일들을 공동체로부터 배운다. 신의 금기는 사람이 그것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벌을 동반한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흠'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켰어야 할 어떤 금기를 어기는 잘못'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 사람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일은 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된다. 금기의 하ᄂᆞ님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으로서 사람을 '성스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사람은 자신이 배워 들은 금기의 행위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이 된다.

※ 흠(欠)은 우리말 '옴'과 같다. 옴은 살갗이 짓무르는 병으로서 온몸으로 번지며 가려움을 일으키고 살이 헐게 한다. '옴'은 '옮은 것'이자 '옮기는 것'의 매개체로 쓰일 수 있다. 옮은 것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옴에는 '스스로 생긴 것'도 있다. 옮는 병에 옮은 사람은 그 병을 옮기게 된다. 옮음의 관계에서 볼 때 '옮은 사람' 자신 또한 하나의 '옴'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사랑이나 웃음 또는 행복에 옮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옮음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같은 자리'로 옮겨놓는 것과 같다. 옴이 그 '옮을 거리'에서 중립적이라면, 흠은 언제나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옴과 다르다. 옴은 얼룩처럼 묻을 수도 있고, 물감처럼 물들일 수도 있으며, 기분처럼 피어날 수도 있고, 깨진 금처럼 터질 수도 있다. 옴은 그것이 생기자마다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옴은 그 옮아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마저 허물어뜨릴 수 있다. 옴은 이런 뜻에서 '헐은 것', '썩은 것', '짓무른 것', '금이 간 것', '병이 난 것' 등이 된다.

3. 죄(罪): 악의 두 번째 '상징 개념'

가) 하ᄂᆞ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음로서의 죄

"하ᄂᆞ님"은 히브리 낱말 엘로힘(אלהים)을 한국말로 옮긴 것이다. '엘'은 강하고 뛰어나고 두

려운 자를 뜻하는 낱말이지만, 본디는 근동의 창세 신 이름이었다. '엘로힘'은 엘(אל)의 복수인 엘로아(אלוה)에서 나왔다. 그러나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베레쉬트 바라 엘로힘"(태초에 하ᄂᆞ님이)에서 엘로힘은 3인칭 단수로 쓰인다. '엘로힘'은 한국에서는 처음에 한자어 천주(天主)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점차 "하ᄂᆞ님"으로 옮겨졌다. '하ᄂᆞ님'은 하느님과 하나님 모두를 뜻할 수 있다. 하느님은 달님처럼 하늘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에 대한 높임말이다. 우리의 전통에서 하늘은 땅 위를 가리킬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다스리는 자를 상징하며, 더 나아가 길흉화복과 같은 삶의 운명을 주재하기도 한다. 단군 이야기에 빗대어 말하자면, '엘'은 환인(桓因), 즉 모든 밝음의 원천을 말한다.

엘로힘에 앞서 쓰인 히브리말은 "야훼(יהוה)"였다. 「사무엘 상」 2장에 나타난 야훼는 가장 거룩하고, 반석과 같으며, 지식에서 뛰어나고, 행동을 평가하며, 사람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사람을 음부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며, 가난과 부를 자유자재로 주재하고, 신분을 높이거나 낮추며, 땅의 기둥들의 소유자로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고, 죄 지은 자를 우뢰로써 벌하고, 심판을 베푸는 자이다. 야훼는 만군(萬軍),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신이었다.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 가기에 앞서 야훼에게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라고 묻고, 야훼는 다윗에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녕 도로 찾으리라."(사무엘상, 30장, 8절)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바빌론 포로 시절(Babylonian Captivity/BC 597~538년) 동안 야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 만일 야훼가 유대 민족만의 신이라면, 그들의 포로 생활은 야훼의 패배를 뜻하고, 그들은 더 이상 야훼를 섬길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만일 야훼가 모든 신들의 신, 즉 유일신이라면,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들은 야훼의 계율을 더욱 엄격히 지킴으로써 해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B.C. 3세기부터 유대교는 그리스·로마 세계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유대교의 신이 유일신으로서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 보편적인 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썼다. 게다가 야훼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야훼를 일러 예배용어 "아도나이(Adonai/나의 주)"라 불렀다.

리쾨르는 죄에 앞서 사람과 신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있었고, 죄는 이러한 계약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한다.(60) 사람과 계약을 맺은 신은 야훼이자 엘로힘이고 아도나이이다. 계약의 한 당사자인 신의 모습은 사람과 같을 뿐 아니라, 신 또한 '사람을 향해' 부르고, 선택하고, 침묵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는 공통적으로 말과 관계된다. 야훼의 **루아흐(ruah)**는 영(靈/spirit)이지만, 그 본디 꼴은 **다바르(davar)**였다. 이 낱말은 고대 그리스 말 **로고스(logos)**로 옮겨졌는데, 로고스는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아는 것(ratio)과 말할 줄 아는 것(oratio)을 한데 이르는 낱말이었다.(61)

다바르가 사람을 찾는 야훼의 목소리를 뜻한다면, 사람은 야훼의 부름에 대답하고 응답해야 한다. 게다가 야훼의 루아흐가 바람이자 숨, 달리 말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성령의 활동인 한, 사람이 저 다바르를 따른다는 것은 그가 야훼의 보살핌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버이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써 사람의 삶을 배워 나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야훼의 다바르를 통해 비로소 말을 배우고, 말로써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말에 담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사람과 신이 서로 부

르고 찾으며 말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그 둘은 서로의 관계를 말로써 묶는다. 이것이 곧 계약이다.
사람과 신 사이의 계약은 그 둘의 연대성으로부터 생겨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들의 신 야훼가 이기고 지는 것과 같다. 그 둘은 서로 묻고 대답하며, 탄원하고 용서하며, 고발하고 경고하고 위협하며, 슬퍼하고 기뻐한다. 유대 민족이 그들의 신 야훼와 더불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마치 한 몸처럼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오는 가운데 서로의 유대 관계를 더욱 굳세게 만들기 위해 맺은 것이 바로 계약이다. 계약은 그 둘 사이의 이러한 관계의 산물인 셈이다. 따라서 사람이 그 계약을 깨트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범이나 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라 깊은 유대와 강한 신뢰에 기초한 '인격적 관계'를 끊는 짓이자 상대를 모욕하는 것이다.(62-63)
만일 죄가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어기는 일 또는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계약이 죄(罪)에 앞서 있어야 하고, 계약이 다시금 하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오는 협력과 유대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러한 삶의 관계가 계약에 앞서야 한다. 따라서 죄는 계약뿐 아니라 유대 관계에 근거한다. 우리가 '죄로서의 악'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계약 침해의 사건을 넘어 **관계 단절의 사태(계약 자체의 취소)**로 거슬러 내려가야 한다. 만일 두 나라 사이에 맺었던 조약이 깨졌다면, 두 나라는 서로를 비난할 것이고, 그 둘 사이의 옳고 그름을 심판할 '더 높은 권력'이 없는 한, 그러한 깨트림의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 즉 두 나라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려 할 것이다.
리쾨르에 따를 때 계약 침해로서의 죄는 예언가들의 말(신탁)과 기존의 법률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로부터 발원한다.(64-69쪽)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살려면 주님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불같이 휩쓸어 살라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 집에서는 아무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을 것이다."(아모스, 5장, 6절)라고 외쳤다. 만일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앞에 맞닥뜨려 있음을 깨닫고, 자신들을 살리실 주님을 찾아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땅에서]"(아모스, 9장, 15절)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죄목들 – 전쟁 지도자들의 잔학함, 상류층의 사치, 노예 매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처사 – 은 부패라는 '**중심된 악**'의 표시들에 지나지 않는다.(66) 이것은 마치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는 것과 같다. 하ᄂᆞ님은 죄 지은 백성을 "곡식을 체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아모스, 9장, 9절) 체질하려 한다. 이때 체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의 삶 전체가 야훼의 땅에로 옮겨 심겨야 한다. 이는 사람들에게 신과의 본래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것을 뜻한다.
온전한 관계 회복은 주어진 법규들을 위반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리쾨르는 죄의 문제를 법규 위반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본다. 예언가는 주어진 계명이나 법규를 새롭게 해석하고 평가하려 한다. 그로써 예언의 내용은 다시금 율법 속으로 스며든다. 보기를 들어, 정의의 하ᄂᆞ님을 섬겨야 한다는 외침, 달리 말해, 불의한 자들은 하ᄂᆞ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우상 금지의 계명으로 자리를 잡고, 하ᄂᆞ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라는 외침, 달리 말해,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ᄂᆞ님의 노여움

을 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결국 남과 그의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정착된다.(68쪽)
죄가 비록 법규를 위반하는 데 놓일지라도, 죄가 죄가 되는 까닭은 그것이 법규의 근거인 계약의 목적을 그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은 법규의 위반을 지적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일깨우려 한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와 달리 죄에서 벗어나 신에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즐거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신의 노여움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스바냐, 3장, 12절)이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며,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다.(스바냐, 3장, 13절)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스바냐, 3장, 14절)할 것이다.
'종교적 악'으로서의 죄는 신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과 참되게 관계하지 않는 데 있다. 이때 참된 관계는 단순히 기존의 계약을 어기지 않는 정도로는 충족될 수 없고, 하ᄂᆞ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로 돌아와 그를 올바로 섬길(신명기, 10장 12절 살핌) 때만 맺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보다 자신들의 주인인 하ᄂᆞ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주어진 율법을 지키면서 거듭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ᄂᆞ님께로 돌아"갈(신명기, 30장 10절) 때에만 신과 '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수는 이러한 관계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ᄂᆞ님을 사랑하여라."(마태복음, 22장 37절)라고 요약했다.

나) 벗어남(어긋남과 거스름)으로서의 죄

아모스 선지자는 '마음을 다하지 못한 죄목'으로 불의를 꼽았고, 호세아는 그것을 간음하는 여인에 빗댔으며, 이사야는 교만을, 예레미야는 믿음의 결여를 내세웠다.(79) 사람들이 자신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관계해야 하는 신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흠이 있기 때문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그 흠만 깨끗이 씻어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성스러운 관계'는 부정한 것으로서의 흠이 없다는 것만을 통해서는 맺어질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 관계의 결여는 흠보다는 '죄' 때문에 빚어진다. 이때 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신보다 물질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죄는 흠과 다르다. 흠은 더러운 어떤 것이 자기 자신에게 옮아붙음으로써 발생하지만, 죄는 지켜야 할 법규를 어기거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짓게 된다. '악으로서의 흠'은 떨쳐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악으로서의 죄'는 본래의 자리에로 되돌아감으로써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흠을 떨쳐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에게 옮은 더러운 요소 때문에 성스러운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구성원으로부터도 격리되거나 추방된다.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은 그 본디의 관계가 끊긴 까닭으로 버림을 받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죄의 본질은 맺어진 관계를 참답게 채우지 못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마치 관계에 금이 가거나(교만, 방자, 무시, 모욕)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를 대하는 마음에 흠이 생기거나(소홀, 태만,

마음 없음) 관계 자체가 뒤틀리는 것(거짓, 가식, 위선)에 빗댈 수 있다.
사람과 신의 참다운 관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마가복음, 2장, 22절)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양가죽을 통째로 묶은 부대에 넣어 보관했다. 이 가죽은 오래되면 딱딱해져 부스러지기 쉬웠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가죽의 성질을 모른 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보관한다면, 그 부대는 새 포도주가 시간이 발효되어 부피가 팽창하는 바람에 터지고 말 것이고, 결국 포도주는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져 버리고 말 것이다. 즉 부대는 텅 빈 터진 자루가 되고 만다. 사람은 날마다 하ᄂᆞ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 하ᄂᆞ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마르지 않는 포도주는 사람이 새 부대에 잘 담아놓을 때만 보존된다.
죄는 신이 선물해 준 '생명의 포도주'를 낡고 찢어진 흠투성이의 부대자루에 담아 둔 채 방치하는 것이다. 만일 포도주가 쉼 없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담을 새 부대를 온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은 포도나무 자체를 잘 돌봐야 할 것이다. 포도주가 거저 주어지는 하ᄂᆞ님의 은혜라면, 포도나무는 은혜의 근원이 되는 '참다운 관계'가 된다. 사람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그도 포도 열매를 맺어 포도주를 선물할 수 있다. 예수가 포도나무고, 하ᄂᆞ님이 농부라면,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로써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 은혜에 값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이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포도 열매는 맺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죄는 사람이 이러한 은혜(거저 주어진 빛)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에 값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어긋난 살이(세속적 삶)'를 살아가는 데서 생겨난다.
리쾨르는 **온전한 관계의 끊김**으로서의 '죄'가 히브리어 성경의 그리스 번역을 통해 비로소 낱말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았다. 리쾨르는 죄의 관념을 상징화한 낱말들로 히브리 낱말과 그리스 낱말을 뒤섞어 설명하고 있다.(80쪽)
㉠ 하타트(chattat) 또는 아원(awon)
이 두 낱말은 히브리 말이다. 하타트는 '목표가 없다.'는 뜻이고, 아원은 '비뚤어진 길'을 나타낸다. 이 두 낱말은 그 둘이 한데 쓰여 '변형된 것'을 가리킨다. 이때 변형의 의미는 '질서에서 벗어났거나 똑바른 길을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행위의 동기나 행위자의 내면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타트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하마르테마(ἁμάρτημα)**" 또는 "하마르티아(ἁμάρτία)"였고, 하마르톨로스(ἁμάρτολος)는 질서나 관습 또는 율법을 어긴 사람을 말했다. 여기에서 '죄'를 가리키는 라틴 말 페카툼(peccatum/죄)이 나왔다. 아원이 말하는 길은 윤리적 복종의 뜻을 담고는 있지만 파르메니데스의 조각글 "말이 내 열정에 대답하듯 나를 잡아끌고 유혹한다. 그리고 나를 그 유명한 길로 데려다놓았다."에 나오는 길처럼 지혜 또는 진리에 다다르는 통로의 뜻도 간직하고 있다.(80)
㉡ 페샤(pesha)
이 히브리 낱말은 반항 또는 목이 뻣뻣함을 뜻한다. 이는 '하ᄂᆞ님의 뜻에서 벗어난 객관적 상태'를 말하기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페샤는 사람이 하ᄂᆞ님의 의지를 거스르고자 하는, 그로써 하ᄂᆞ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킨다. 사람이 하ᄂᆞ님과 맞서려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본디 '하ᄂᆞ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실존론적 사실을 깨트린다. 맞섬의 의지는 실존적이다. 그것은 배신, 간음,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 교만, 목을 빳빳하게

추켜 세움 등으로 표현된다. 이에 대한 그리스 말은 "**휘브리스(ὕβρις)**"이다. 이것이 곧 사람의 악이다. 다만 휘브리스는 사람과 신 사이에 맺은 계약의 파기나 대화의 단절을 뜻하기보다 사람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들의 질투를 뜻하는 것으로 더 많이 쓰였다.(81)

㉢ 샤가(shagah)

이 히브리 말은 죄인이 처해 있는 상황, 곧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멀리 벗어나 외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81) 이 말이 쓰인 성경 구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Wine is a mocker, strong drink is raging: and whoever is deceived by it is not wise)."(잠언, 20장 1절) 사람이 포도주 또는 독주에 취하면 그는 스스로를 과신하고 과장하여 실수를 저지를 뿐 아니라 자신의 먹은 것을 술상에 토하여 조롱거리가 된다.(예레미야, 48장 26절) 술에 취한 사람은 하ᄂᆞ님의 지혜를 비웃고, 자신의 지혜를 과신하여 교만과 자만에 빠지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ᄂᆞ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겠다고 포효한다(하마, hamah). 오만에 미혹된(샤가, shagah) 사람은 하ᄂᆞ님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길을 가려 하다 끝내 길을 잃은 채 혼미와 미혹과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샤가는 거역(拒逆), 즉 '**거슬러 어김**'의 뜻으로 어떤 윗사람의 명령에 힘으로 맞서려 하는 것이고, 아울러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혼자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람은 그 자신이 본래적 관계를 맺고 있던 신과 대화를 끊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그로써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낯설게 된다. 하ᄂᆞ님이 자리에 없다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낯선 곳으로 버려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이러한 사람은 닻이 끊긴 채 표류하듯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배와 같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방황(彷徨/헤맴)"이라 부른다. 방황은 어둠 속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다.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윤리적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81-82쪽)

죄는 참된 관계가 없는 것, 하ᄂᆞ님의 뜻을 거슬러 어기는 것, 하ᄂᆞ님의 길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본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 미혹하는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우상을 쫓는 것 등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은 뜬 구름 같은 것으로서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들이다. 그것들은 결코 참된 것일 수도, 따라서 영원한 것일 수도 없다. 죄는 '헛된 것'이자 '아무것도 아닌 것', 한 마디로 말해, '무(無)'와 같다. 리쾨르는 죄의 부정적-소극적 측면이 갖는 상징성을 "없음・빗나감・거역・벗어나 떨어져 있음"의 말과 바람과 우상 등의 비유에서 밝혀내고 있다.(83쪽)